

한·미 양교회의 관계를 재검토하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 연합 건물 인터처치·센터가 지난 달부터 흑인 민권 운동자로 말미암아 강제로 점령당했다고 한다. 저들은 이 고층 건물을 한층 씩 점령할 때마다 그 층을 <해방>시켰다고 떠들어댔다고 한다.

각 교단 본부가 저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사무 기능이 마비되어 직원들이 출근도 못하는 형편이고 멀지 않아서 미국 교회 연합회 사무실도 저들에게 점령당할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민권 운동이 사회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도 이처럼 무법 천지를 이루어 나가는 저들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그간 미국 교회는 비교적 민권 운동을 지원해 왔다고 보는데, 자기들의 운동을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는 교회 기관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배은망덕이요, 갈피를 잡을 줄 모르는 민권 운동자들의 부정부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같은 이해와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서, 그 국내 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여기에 대한 미국 교회의 책임이 더욱 가중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 교회의 과거 역사를 다시 훑어 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지향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미국 교회의 입장이 더 강화되어서 서로가 조금

라도 도의적인 지지를 교류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 교회와 주한 미국 선교부간에 선교부 재산권 관리 문제를 여러번 모임이 있었고 또 한국 교회 측에서는 미국 선교부 재산 이양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영겨있는 것이다. 첫째로는 한국 교회가 재산을 이양 받고 관리하는 일 자체에서 무슨 주체성을 가인양 착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뚜렷한 선교의 정책과 목적이 선행되지 않고 무턱대고 재산을 이어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한국 교회가 지지른 술한 무능, 부패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한 교파간 혹은 교파 안의 분열 조장이 결국 한국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뜯어 나누어 먹는 아귀다툼으로 전환되는 사태 때문에 선교부에 좋은 구실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쓰라린 사실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다. 한국 교회가 겪은 실수, 부패, 무능이 영영 고칠 수 없는 고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질을 극복하려는 데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 만으로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는 재산을 넘겨 주려는 선교부 자체의 진지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특히 협조 정신이 따라야 한다. 재산을 무턱대고 넘겨 주는데도 하나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옛날의 실수와 부패를 극복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선교부가 한국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의 액수는 미국 선교부가 한국에서 현재까지 소비한 전체 선교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한다.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처분해서 선교비로 사용하면 혜택을 입는 한국 교회에서 별말 없이 받아들여곤 한다. 그러나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몇몇 지 못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매도하고서도 겉으로는 양도해 준 것처럼 꾸미는 것은 분명히 탈세 행위요, 또 나아가서는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실지로 외화를 한국에 유출시키지 않고서도 숫자로써 나열한 선교비 정책을 감행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법에 어긋나는 일인 동시에 선교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근간 각 선교부에서 부동산 이양의 형식 뒤에 숨은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주시하여야 하며 더우기 어떤 구제 기관에서는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헐값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모조리 현 시가로 매각하여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 선교부가 우리 나라에서 그간 봉사와 협동을 통해서 보여준 성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이러한 교식적인 선교비 정책 사용이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의 인플레이를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경이 제 닭 잡아 먹는 식의 눈가림을 더 이상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 양국 교회는 선교의 목표를 뚜렷이 내세우고 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감당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미국 선교부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재산을 단계적으로 무상 양도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양국 교회의 관계가 떳떳하고 후일에 두 나라 교회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